

인천 섬유공장 외국인 근로자 폭행사건 구속영장 청구

지난 4월 24일 인천 서구 섬유공장 업체 대표 A씨가 외국인 근로자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인천북부노동청과 서부경찰서는 공조수사를 통해 A씨가 다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여러 불법행위를 일삼은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었고, 사회적 약자인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5. 29. A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공동 신청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은 6. 2.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인천북부지청 이상목 지청장은 “근로자에 대한 폭행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열악한 처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담당 부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노동기준조사1과	책임자	과 장	염종식 (032-540-7907)
		담당자	수석근로감독관	황성기 (032-540-7949)